

#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3-지역이슈-3(2023.6)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CONTENTS

- 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앙아시아
- I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중앙아시아 5개국 경제
- II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관계에 대한 영향
- IV. 시사점

###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2-3603)  
ykj@koreae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 요약 >

### 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앙아시아

-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 및 경제, 대외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정치 및 안보, 경제 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중앙아시아의 대외협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I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중앙아시아 5개국 경제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2년 중앙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은 2022년 중앙아시아 경제가 전쟁 발발 초기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이 상승 추세에 있으며, 교역 증가율도 세계 평균이나 신흥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2022년 교역의 경우 카자흐스탄은 전년 대비 32.1%, 우즈베키스탄은 전년 대비 22.6% 각각 증가했음. 또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도 모두 증가하였음.
- 2022년에는 중앙아시아 해외 이주노동 인력의 자국에 대한 송금액이 증가하였음.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유입되는 송금액의 증가는 러시아 루블화 환율의 안정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II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관계에 대한 영향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22년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5월 러시아 전승기념일 행사에 중앙아시아 정상들이 참석하는 등 러시아와 정치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23년 5월 중앙아시아 정상들은 중국에서 개최된 최초의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에 참석하며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각국의 운송 인프라 및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중국 기업의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
- EU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여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한편,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물류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물류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IV. 시사점

-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성장에 따라 대외 경제협력 다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교역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원유 및 가스, 광물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여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공급망 안정을 지원할 수 있음.
- 중앙아시아 물류망이 전쟁으로 불안정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의 물류망 구축 사업에 한국 물류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앙아시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앙아시아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하여 2023년 6월 현재까지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유라시아 지역에 위치한 구소련 국가들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정치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는 구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쟁의 지속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정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UN 영세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집단안보기구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 가입해 있음.
  - \* CSTO는 소련 해체 이후 2002년 10월에 조직된 유라시아 지역 안보기구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가 회원국이며,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우즈베키스탄은 가입 후 탈퇴하였음.
- 경제적 측면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와 이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변동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주요 교역 및 투자국이며, 러시아 주도의 지역 경제협력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는 EAEU 회원국이고, 우즈베키스탄은 옵저버국이며, 타지키스탄은 향후 가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 EAEU는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협력을 위해 2015년 1월에 러시아 주도로 조직된 협의체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아르메니아가 회원국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옵저버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전쟁의 지속과 서방의 대 러시아 고립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중앙아시아의 대외협력 정책 방향이 주목됨.
- 러시아는 기존의 주요 협력국들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2023년 5월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행사에 각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는 등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중앙아시아는 주변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EU, 중국과도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향후 대외정치 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I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중앙아시아 5개국 경제

### 1) 경제 현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 2023년 4월 발표된 IMF World Economic Outlook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2021년 대비 하락했으며, 2023년에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소비자물가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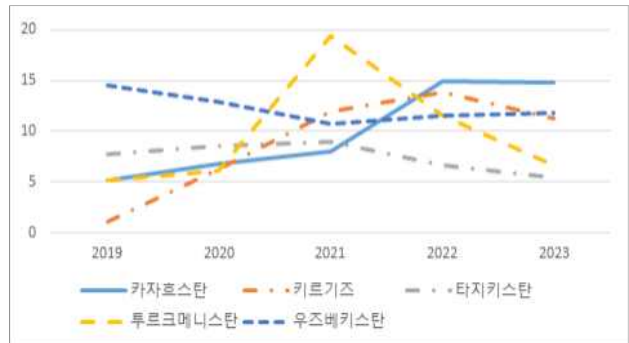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그림 2] 중앙아시아 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 다만, OECD와 세계은행(Global Economic Prospects), EBRD 등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은 중앙아시아 경제가 전쟁 발발 초기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2022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하고 있음.<sup>1)</sup>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에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세계 평균이나 신흥국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

[표 1] 세계 및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2019~23년)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sup>f</sup>
세계	2.8	-3.0	6.0	3.4	2.8
신흥국	3.6	-1.9	6.6	4.0	3.9
중앙아시아 평균	3.8	-0.1	5.9	5.1	4.1
카자흐스탄	4.5	-2.6	4.1	3.2	4.3
키르기즈	4.6	-8.6	3.7	7.0	3.5
타지키스탄	7.4	4.4	9.4	8.0	5.0
투르크메니스탄	-3.4	-2.9	4.6	1.8	2.3
우즈베키스탄	5.9	1.9	7.4	5.7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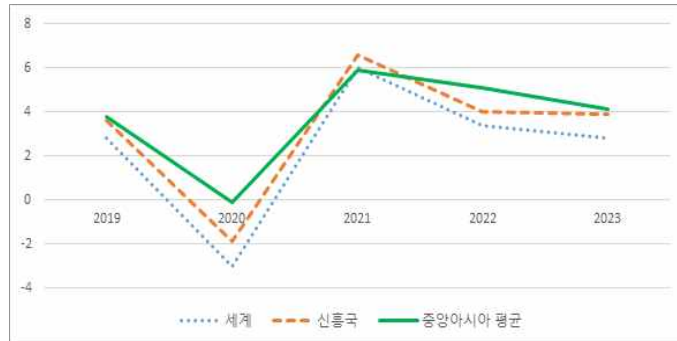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1) OECD. Weathering economic storms in Central Asia. November 2022.



[그림 3] 세계·신흥국·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경제의 안정세는 에너지 수출 증가, 해외이주 노동자로부터의 송금액 증가, 국내소비 증가 등의 결과에 따른 것임.<sup>2)</sup> 에너지 수출국의 경우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액이 많은 국가의 경우 루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송금액이 증가하였음. 또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에서는 공공 부문 임금 인상과 러시아로부터의 개인·기업 이주에 따라 지역 전반의 소비가 증대한 것으로 평가됨.

[표 2] 국제기구들이 분석한 중앙아시아 경제 안정 요인

항목	내용	해당 국가
교역 증가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	카자흐스탄
송금 증가	러시아 루블화 상승에 따른 이주노동자 송금액 증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비 증가	공공 부문 임금 인상 및 러시아 이주민 유입에 따른 소비 증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 (환율)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 통화의 환율은 급격히 상승(해당 통화의 가치 하락)했으나, 이후 점차로 하락하여 안정되었음.
- 러시아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은 기존에도 러시아 루블화 환율과 연동되어 변화했으며, 2022년에도 러시아 루블화의 변동과 유사하게 변화하였음.
- \* 러시아 루블화 환율은 2022년 연초 달러당 75.1루블에서 시작하여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3월 11일 120.4루블까지 상승하였으나 4월 이후 하락하였으며, 연말에는 달러당 70.3루블을 기록함. 2023년 들어서는 다소 상승 추세를 보여, 5월 말에는 달러당 80.0루블을 기록하였음.
- 카자흐스탄 텡게화 환율은 2022년 초의 달러당 431.8텡게에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달러당 512.19텡게(3월 16일)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연말에는 달러당 462.65텡게를 기록함. 2023년 5월 말에는 더욱 하락하여 달러당 445텡게에 머물렀음.
- 우즈베키스탄 솜화 환율은 2022년 초의 달러당 10,813솜에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달러당 11,571솜(3월 18일)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하락하여 연말에는 달러당 11,222솜을 기록함. 솜화 환율은 2023년 들어 다소 상승 추세이며, 5월 말 현재 11,420솜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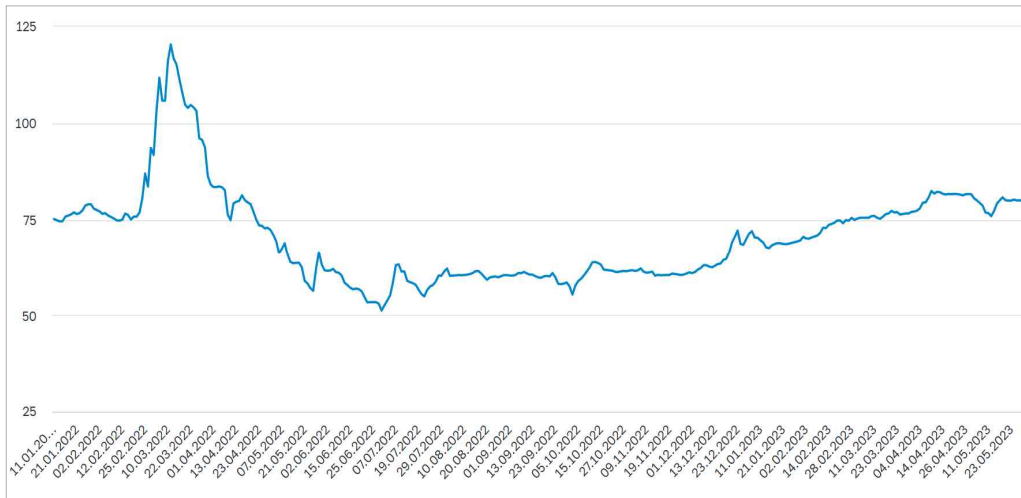
2) OECD. Weathering economic storms in Central Asia. November 2022.



- 키르기즈 솜화 환율은 전쟁 이전에 달러 당 85솜에서 2022년 3월 16일에는 105솜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연말에는 85.7솜을 기록하였고, 2023년 5월 말에는 달러당 87.5솜을 기록하였음.
- 타지키스탄 소모니화 환율은 전쟁 이전 달러당 11.3소모니에서 13.03소모니(3월 18일)까지 상승하였으나, 연말에는 10.2소모니를 기록함. 2023년 2월 이후에는 다소 상승하여 5월 말 달러당 10.7소모니를 기록하였음.
-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마나트화 환율은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달러당 3.5 마나트가 유지되고 있음.

[그림 4] 러시아 루블화 환율 추이(2022.1~20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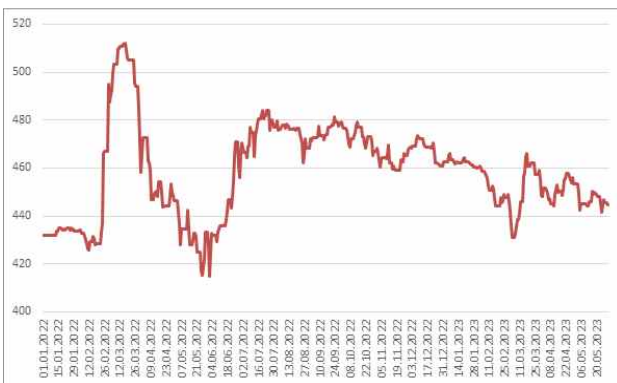
(단위: 루블/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그림 5] 카자흐스탄 텡게화 환율 추이(2022.1~2023.5)

(단위: 텡게/달러)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그림 6] 우즈베키스탄 솜화 환율 추이(2022.1~2023.5)

(단위: 솜/달러)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그림 7] 키르기즈 솜화 환율 추이(2022.1~20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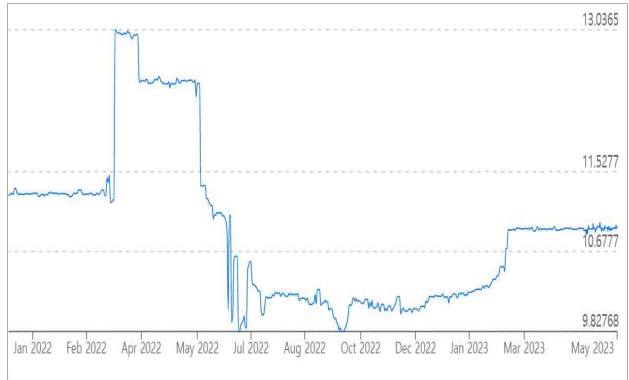
(단위: 솜/달러)



자료: 키르기즈 중앙은행

[그림 8] 타지키스탄 소모니화 환율 추이(2022.1~2023.5)

(단위: 소모니/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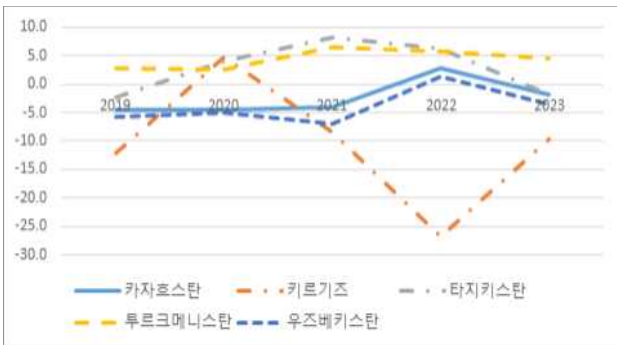


자료: www.xe.com

-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경상수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으며,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크게 증가한 키르기즈를 제외한 4개국이 모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 재정수지의 경우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영 에너지 수출기업의 수입액 증가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에너지 비수출국인 다른 국가들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sup>3)</sup>

[그림 9] 중앙아시아 각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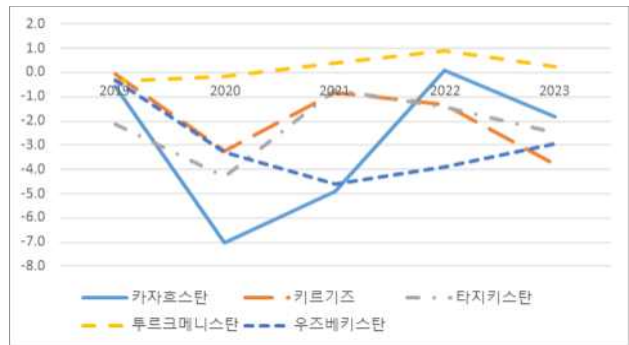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그림 10] 중앙아시아 각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은 향후 중앙아시아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물가 상승을 지목하고 있음. 2023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이와 관련된 공급망 불안 등의 요인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각국의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에너지 수입국들인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의 경우 향후 에너지 국제가격의 상승 시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우려됨.
- 아울러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은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장기 경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외 경제협력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또한 기업환경의 지속적인 개혁과 녹

3)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석유 부문의 정부 조세수입(소득세, 광물추출세 등)은 2021년 61억 1,000만 달러에서 2022년 138억 7,0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함. <https://www.reuters.com> (2023.5.2.)





색전환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역내 인프라 통합과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통합이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제안함.

## 2) 교역 변동과 주요국 교역의 특징

- 202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품교역에서 전체적으로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이 모두 상승하였음.
- 수출에서는 2022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플러스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21년의 수출증가율이 높았던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을 기록함.
- 수입에서는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플러스 수입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함.
- 전반적으로 202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수출입 증가율은 세계 평균이나 신흥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 11] 중앙아시아 각국의 상품수출 증가율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그림 12] 중앙아시아 각국의 상품수입 증가율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표 3] 세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품 수출증가율

(단위: %)

지역	2019	2020	2021	2022
전 세계	0.1	-4.2	10.7	2.6
신흥국	-0.6	-1.2	11.8	1.5
카자흐스탄	1.9	0.4	-15.7	9.8
키르기즈	7.4	-10.1	15.8	35.9
타지키스탄	14.8	18.1	21.1	-4.0
투르크메니스탄	-11.9	-10.7	34.3	-9.7
우즈베키스탄	17.1	-14.4	0.2	16.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표 4] 세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품수입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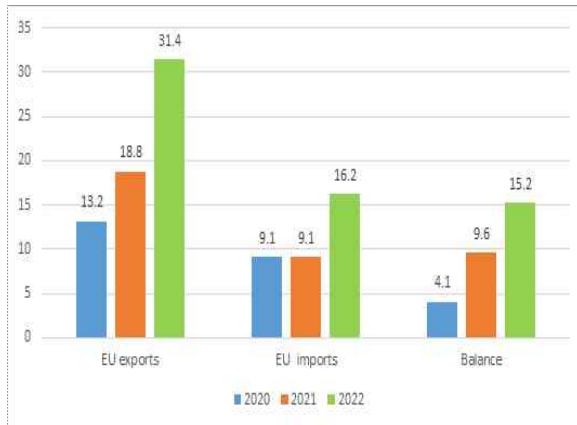
지역	2019	2020	2021	2022
전 세계	0.3	-5.7	11.5	4.0
신흥국	-0.1	-5.7	12.3	2.1
카자흐스탄	18.2	-23.9	-8.6	12.4
키르기즈	-3.2	-21.6	23.8	27.4
타지키스탄	8.6	-1.7	23.1	13.3
투르크메니스탄	9.0	4.9	-1.1	2.4
우즈베키스탄	16.0	-8.4	4.2	14.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EU 간 교역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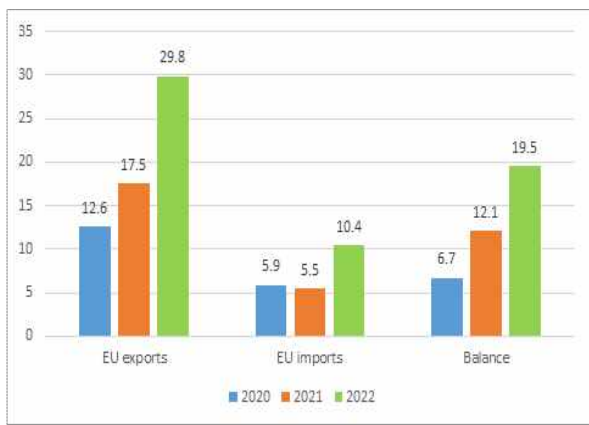
-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EU 간의 교역액이 증가하고 있음. 2022년 중앙아시아의 대 EU 교역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67%, 수입액이 78% 각각 증가하였음.
- 중앙아시아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카자흐스탄의 경우 EU와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29.9%로 수출의 34.6%, 수입의 20.9%를 점유하고 있음.

[그림 13] 중앙아시아의 대 EU 교역(2020~22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https://policy.trade.ec.europa.eu>

[그림 14] 카자흐스탄의 대 EU 교역(2020~22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https://policy.trade.ec.europa.eu>

- (카자흐스탄) 2022년 교역액은 전년 대비 32.1% 증가한 1,344억 달러로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음. 수출은 8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9% 증가했으며, 수입은 4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8% 증가하였고, 상품수지 흑자 규모도 증가했음.<sup>4)</sup>
- 2022년의 수출액 증가는 주요 수출품인 원유, 광물, 밀 등의 국제가격 상승에 기인함. 주요 수출품은 석유, 가스 및 석유제품(61.4%), 금속 및 금속제품(14%), 기계 및 설비(4.6%)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설비(40.5%),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16.7%), 금속 및 금속제품(10.2%) 등임.<sup>5)</sup>

4) <https://stat.gov.kz> 카자흐스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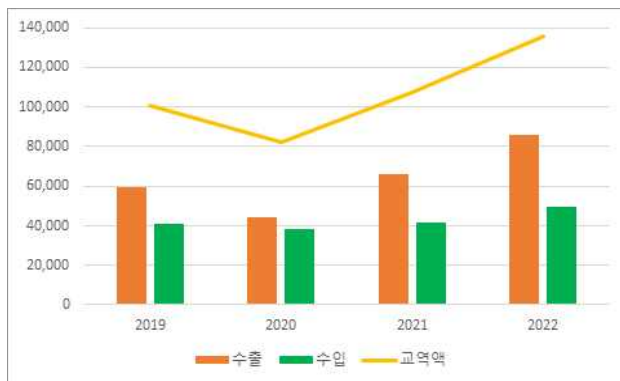
5) <https://stat.gov.kz> 카자흐스탄 통계청



- 원유 수출액은 2021년 310억 달러(6,550만 톤<sup>6)</sup>)에서 2022년에는 468억 달러(6,500만 톤)로 증가하였음.<sup>7)</sup> 광물 수출의 경우 구리 37억 달러(전년 대비 15% 증가), 합금철 34억 달러(전년 대비 51% 증가), 우라늄 34억 달러(전년 대비 95% 증가) 등을 기록함.<sup>8)</sup>
- 최대 교역국은 러시아(19.4%)이며, 중국(18.0%)이 뒤를 잇고 있음. 2022년 국가별 수출입 비중은 수출의 경우 이탈리아 16.4%, 중국 15.6%, 러시아 10.6%, 네덜란드 6.5%, 튀르키예 5.6%, 한국 5.4%이며, 수입의 경우 러시아 34.7%, 중국 21.9%, 독일 4.5%, 미국 3.8, 튀르키예 3.2%, 한국 3.1%임.<sup>9)</sup>
- (우즈베키스탄) 2022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22.6% 증가한 45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sup>10)</sup> 수출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71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23.7% 증가한 283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음.
- 수출의 경우 천연가스(전년 대비 25.4% 증가), 곡물(전년 대비 19.7% 증가), 야채 및 과일(전년 대비 19.7% 증가) 등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수입의 경우 곡물(전년 대비 28.9% 증가), 식료품(전년 대비 67.6% 증가) 등의 증가율이 높았음.
- 국가별 교역 비중은 러시아 18.6%(93억 달러), 중국 17.8%(89억 달러), 카자흐스탄 9.2%(46억 달러), 튀르키예 6.4%(32억 달러), 한국 4.7%(2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sup>11)</sup>
- 국가별 수출입 비중에서는 수출의 경우 러시아 18.1%(31억 달러), 중국 14.6%(25억 달러), 튀르키예 8.7%(15억 달러)이며, 수입의 경우 중국 22.6%(64억 달러), 러시아 21.9%(62억 달러), 카자흐스탄 11.3%(32억 달러)임.

[그림 15] 카자흐스탄의 교역액 추이(2019~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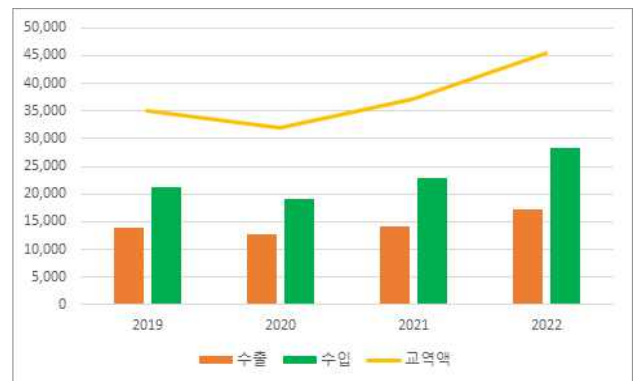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BOP

[그림 16] 우즈베키스탄의 교역액 추이(2019~2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BOP

6) 2022년 카자흐스탄산 원유 수출 가격은 2021년 톤당 473달러에서 2022년 720달러로 급등했음.

7) <https://www.reuters.com> (2023.5.2.)

8) <https://economy.kz> 이외에 석유제품이 73%, 석탄이 2.4배, 아연이 43% 수출액이 상승했으며, 밀의 수출액도 3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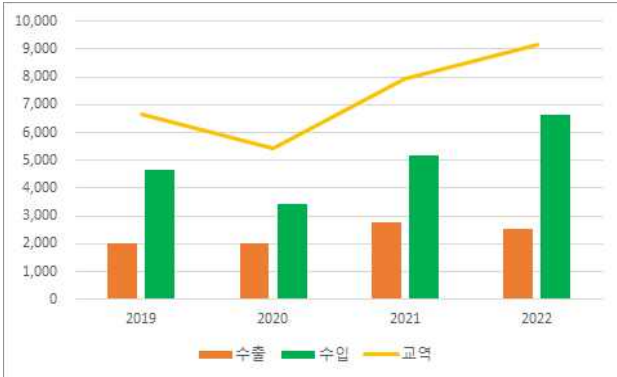
9) <https://stat.gov.kz> 카자흐스탄 통계청

10) IMF

11) <https://uz.sputniknews.ru> (2022.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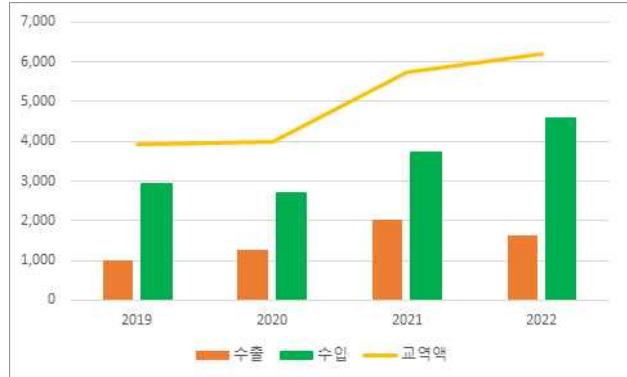


[그림 17] 키르기즈의 교역액 추이(2019~22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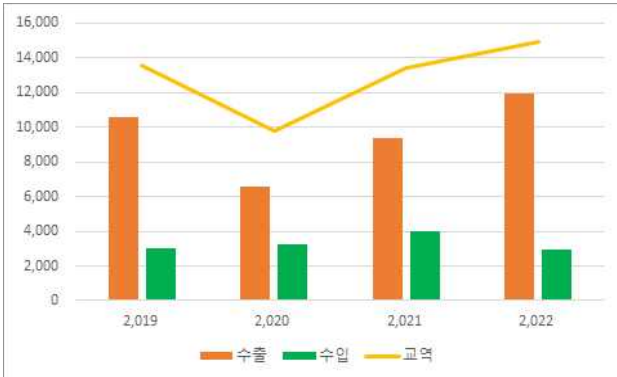
자료: EIU

[그림 18] 타지키스탄의 교역액 추이(2019~2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BOP

[그림 19]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액(2019~2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IU

- 2022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액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2022년 타지키스탄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키르기즈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15.0%,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11.1% 각각 증가하였음.<sup>12)</sup>
-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는 수입액이 증가하고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 에너지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액이 증가하고 수입액이 감소하였음.

### 3) 송금액 유입 증가와 그 특징

#### 러시아의 비중이 높은 송금액 유입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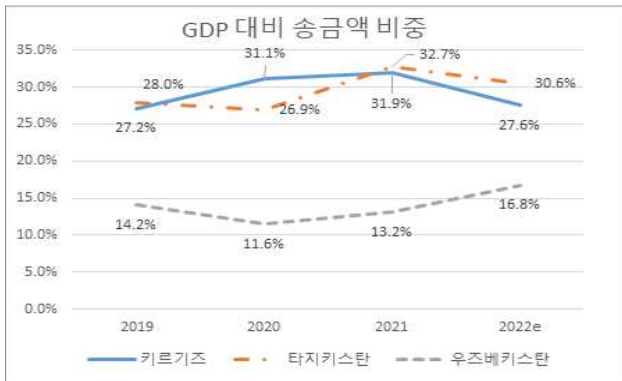
- 202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유입된 해외이주 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GDP 대비 송금액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12) IMF BOP: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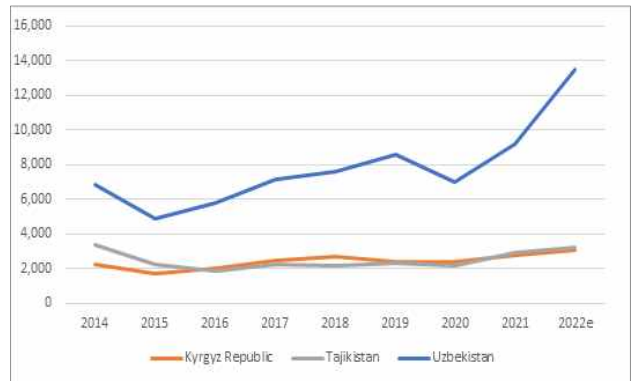
-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유입되는 해외 송금액의 증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러시아 루블화 가치 안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sup>13)</sup>
- 2022년 중앙아시아 전체의 해외 유입송금액은 201.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2021년의 전년 대비 10% 증가(152.23억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음.
- GDP 대비 송금액 비중은 키르기즈가 2021년 31.9%에서 2022년에는 27.6%, 타지키스탄은 2021년 32.7%에서 2022년에는 30.6%로 다소 하락하였음.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13.2%에서 2022년에는 16.8%로 상승하였음.

[그림 20] 중앙아시아 각국의 GDP 대비 송금액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세계은행 2022년 11월(송금액);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GDP)

[그림 21] 중앙아시아 각국의 송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https://www.ceicdata.com>

[표 5] 중앙아시아 각국의 송금액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카자흐스탄	401	294	384	560	618	506	374	310	370
키르기즈	2,243	1,688	1,995	2,486	2,689	2,411	2,423	2,792	3,050
타지키스탄	3,384	2,259	1,867	2,237	2,183	2,322	2,187	2,922	3,200
투르크메니스탄	31	16	8	5	1	2	2	1	1
우즈베키스탄	6,815	4,843	5,795	7,130	7,610	8,546	6,980	9,198	13,500
합계	12,874	9,100	10,049	12,419	13,101	13,786	11,966	15,223	20,121

자료: 세계은행 2022년 11월

13) <https://www.worldbank.org>



### Ⅲ.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관계에 대한 영향

#### 1. 주요국과의 협력

##### (1) 대 러시아 협력

##### 정치적 협력 지속: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에 반대 표명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규탄이나 제재 시행에 반대하고 있음. 이는 2022년에 진행된 UN 총회 및 UN 긴급 특별총회의 러시아 침공 규탄, 러시아군 병력 철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상 등의 표결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대표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것에서 잘 나타남.
  - \* 다만,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정치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영토 병합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는 않고 있음.
-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2023년의 러시아 전승절(5월 9일) 행사에 러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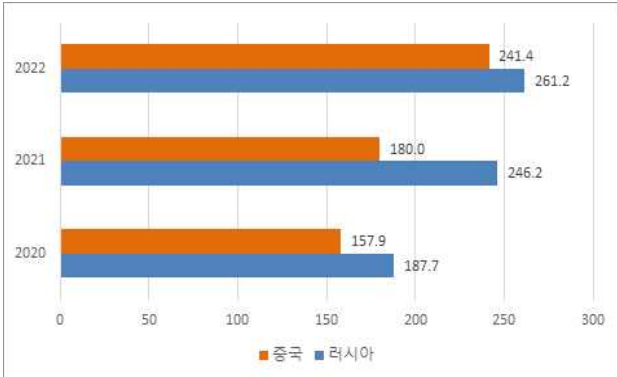
##### 경제적 협력 지속: 대 러시아 교역액 증가 추세

- 2022년에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대 러시아 교역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상대국임. 우즈베키스탄의 교역에서 러시아는 2019~20년 중국에 이어 2위 교역상대국이었으나, 2021~22년에는 1위 교역상대국이 되었음.
- 2022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교역액은 261억 달러로 전년(246억 달러) 대비 6% 증가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의 대 러시아 수출액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데 기인함. 특히 아연, 합금철 등의 광물과 계산기, 모니터 등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카자흐스탄의 대 러시아 수입액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으나, 석유 및 석유제품과 밀의 수입액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음.
- 2022년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92.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국의 자리를 점유함. 우즈베키스탄의 대 러시아 수출은 섬유제품, 식료품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 러시아 수입은 제조업 제품, 기계, 운송장비, 식료품 등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sup>14)</sup>

14) <https://uz.sputniknews.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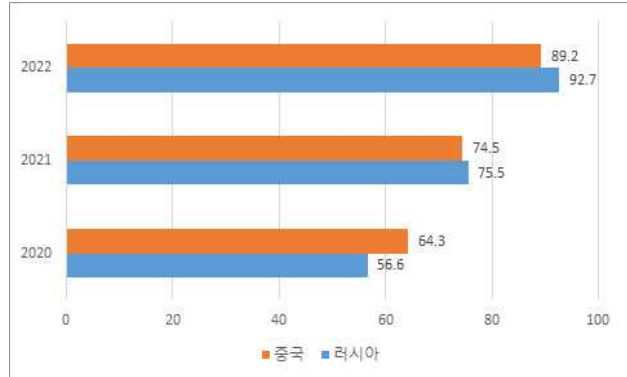


[그림 22]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대중국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https://stat.gov.kz>

[그림 23] 우즈베키스탄의 대러시아, 대중국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https://www.gazeta.uz>

[그림 24]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대중국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https://stat.gov.kz>

[그림 25]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대중국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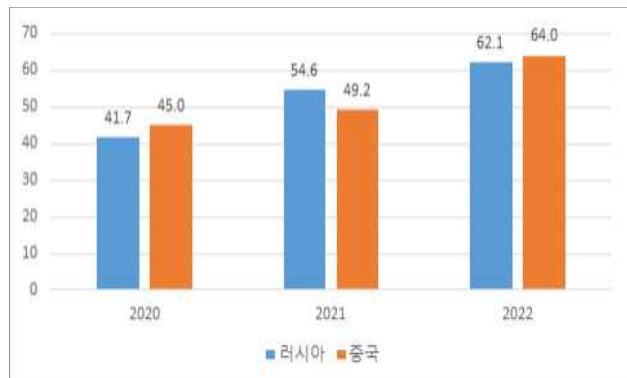
자료: <https://stat.gov.kz>

[그림 26] 우즈베키스탄의 대러시아, 대중국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https://www.gazeta.uz>

[그림 27] 우즈베키스탄의 대러시아, 대중국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https://www.gazeta.uz>



## (2) 대 중국 협력

### 정치적 협력 확대: 중국과의 공동 정상회담 개최

- 2023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에 최초로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중국과의 정치적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음.
- 2023년 5월 18~19일 중국 시안에서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참여국들은 향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음. 이번 정상회담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였음.
-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중국이 주도하는 정치·안보·경제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sup>15)</sup>의 회원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향후 중국과의 정치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적 협력 확대: 교역 및 인프라 참여 확대

- 중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인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에 이어 이 국가들의 두 번째 교역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중국의 카자흐스탄산 원유 수입 증가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상품수출에서 중국은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15.6%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수입상대국으로, 우즈베키스탄 상품수입의 20.9%를 점유하고 있음.
-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는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확장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앙그렌-팜 철도 터널, 카자흐스탄 아크몰라 주 풍력발전 프로젝트, 키르기스 남북 도로 프로젝트, 중국-키르기스-우즈베키스탄 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임.
- 중국은 카자흐스탄과의 국경지역인 호르고스에 물류 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카자흐스탄-중국 국제공업단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호르고스 지역에 설립될 양국의 제조업 단지는 1,000헥타르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2023년 말까지 첫 단계 건설을 완료할 계획임.

15) SCO는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8개국이 정회원, 아프가니스탄, 몽골, 벨라루스, 이란 4개국이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음.





[그림 28] 호르고스 물류 특구



자료: <https://multimedia.scmp.com>

- 중국은 에너지 운송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원유 및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 중국은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연결되는 1,833km의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을 통해 432억 m<sup>3</sup>의 가스를 수입했음. 현재 이 가스관의 최대 가스공급량은 연 550억 m<sup>3</sup>이며, 향후 추가 가스관 건설을 통해 공급량이 연 850억 m<sup>3</sup>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2. 에너지 및 물류 협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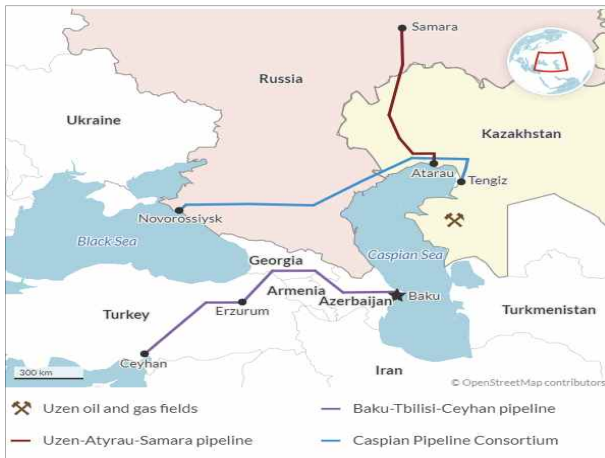
### 중앙아시아의 대 EU 에너지 협력 확대

- 카자흐스탄 정부는 EU가 대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대 EU 에너지 수출 증대를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12월 카자흐스탄 외무장관은 독일에서 개최된 독일 경제장관과의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이 독일에 원유를 공급할 수 있음을 밝힘. 카자흐스탄은 송유관을 통해 연 200만~500만 톤을 공급하고 추가로 선박을 통해 원유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향후 드루지바(Druzhba) 송유관을 통한 EU의 카자흐스탄산 원유 수입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 카자흐스탄산 원유는 러시아를 통과하는 드루지바 송유관이나 CPC 송유관, 아제르바이잔의 BTC 송유관과 선박을 이용하여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음. 그동안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의 80%는 CPC 송유관을 통해 수출되었으며, BTC 송유관을 통한 노선은 2023년 1월 처음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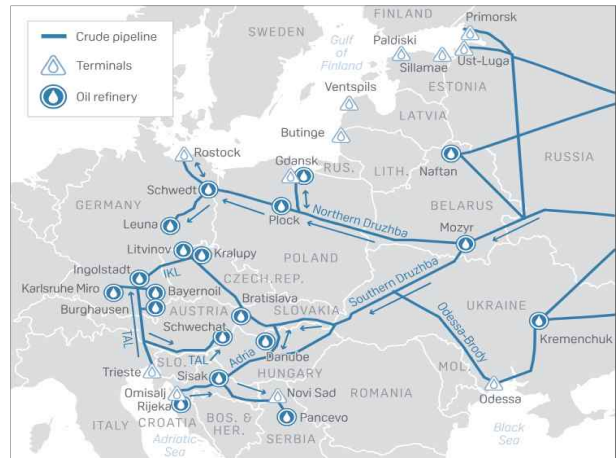
- 2023년 3월에 EU로 연결된 러시아 송유관을 통해 카자흐스탄 원유가 독일로 수출되었음.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국영 송유관기업 Transneft와의 협상을 통해 2023년 3월부터 자국산 원유를 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독일로 공급하고 있음.<sup>16)</sup> 독일은 카자흐스탄과 2022년 12월에 진행된 협상에서 2023년 120만 톤 규모의 원유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sup>17)</sup>
- EU의 카자흐스탄산 원유 수입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2021년 4분기~2022년 1월)에는 전체의 8~14%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U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카자흐스탄은 미국, 노르웨이 다음으로 많은 규모의 원유를 EU에 수출하고 있음.<sup>18)</sup>

[그림 29] 카자흐스탄의 기존 대EU 원유 수출 송유관  
(단위: 톤)



자료: <https://www.gisreportsonli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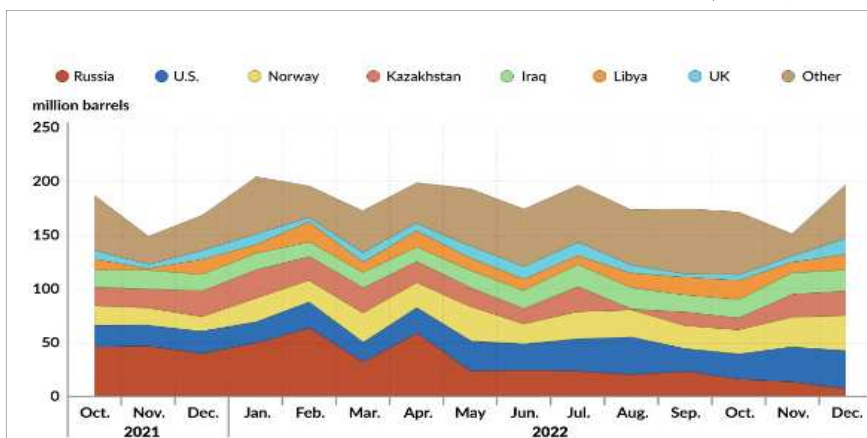
[그림 30] 러시아의 드루지바 송유관



자료: <https://www.spglobal.com>

[그림 31] EU의 주요 원유 수입상대국별 수입규모 추이

(단위: 백만 배럴)



자료: <https://ec.europa.eu>

16) 러시아의 Transneft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 원유의 폴란드 공급을 중단하였음.

17) <https://jamestown.org>

18) <https://ec.europa.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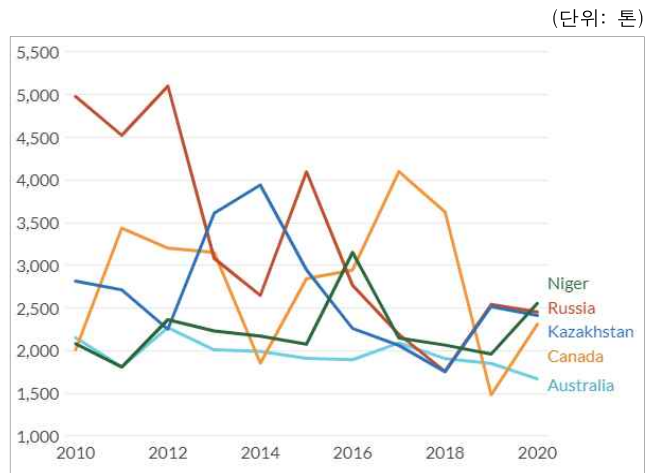
- 한편,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EU의 주요 우라늄 수입상대국이며, 향후 러시아산을 대체하여 EU에 대한 우라늄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6] 세계 주요 우라늄 생산국(2020년)  
(단위: 톤)

국가	생산량
카자흐스탄	19,477
호주	6,203
나미비아	5,413
캐나다	3,885
우즈베키스탄	3,500
나이지리아	2,991
러시아	2,846
중국	1,885
우크라이나	744

자료: <https://www.gisreportsonline.com>

[그림 32] 대EU 5대 우라늄 공급국(2010~20년)



자료: <https://www.gisreportsonline.com>

##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

-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중앙아시아 가스관을 통해 처음으로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추진하고 있음.<sup>19)</sup>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2023년 5월 초 개최된 회의에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2023년 초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Gazprom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는 가스 부문 협력 로드맵에 합의했는데, 이 로드맵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sup>20)</sup>
- 2022년 우즈베키스탄은 517억 m<sup>3</sup>의 가스를 생산하여 464억 m<sup>3</sup>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40억 m<sup>3</sup>는 중국으로 수출하였음. 그러나 겨울철에는 국내 소비용 가스의 부족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부터 가스를 수입하고 있음.<sup>21)</sup>
- 한편,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5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 북부를 거쳐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을 논의하고 있고, 경로가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음.<sup>22)</sup>

\* 현재 러시아는 중국으로 연결된 가스관(Power of Siberia, 연간 최대공급량 380억 m<sup>3</sup>)을 통해 가스를 수출

19) <https://bne.eu>

20) <https://oilcapital.ru> (2023.3.3)

21) <https://kun.uz> (2023.2.3.)

22) <https://www.reuters.com> (2023.5.16)



하고 있으며, 연간 공급용량이 500억 m<sup>3</sup>에 달하는 “Power of Siberia 2” 가스관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음.

[그림 33] 기존의 러시아-중국 가스관 구상



자료: <https://www.ft.com>

### 중앙아시아의 국제운송물류망 발전 추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앙아시아 물류환경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내륙지역인 중앙아시아의 물류를 해양으로 연결하기 위한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 2022년 2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은 3국을 연결(Mazar-i-Sharif-Kabul-Peshawar)하는 총예산 50억 달러, 총연장 750km의 철도 건설에 합의했음. 이 철도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화물이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여 파키스탄 주요 항구들인 카라치(Karachi), 과다르(Gwadar), 카심(Qasim)항 등으로 연결되며, 향후 이중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의 해양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철도 건설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파키스탄까지의 화물 운송시간이 5일로 단축되고, 운송비용이 30~40%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7년 말 철도 운행이 개시되고 2030년에는 연간 1,5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2023년 5월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이 철도 프로젝트를 담당할 사무소가 개설되었음.<sup>23)</sup> 향후 이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카자흐스탄의 참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됨.
- 기존에 논의되어 온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는’ 유라시아 물류망의 본격적인 추진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물류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튀르키예, EU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인 TITR(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는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됨. 이 운송망에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EU 등 관련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23) [https://eurasianet.org\(2023.5.15.\)](https://eurasianet.org(2023.5.15.)); [https://kun.uz\(2022.3.29.\)](https://kun.uz(2022.3.29.))



[그림 34]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연결 철도 [그림 35] 중앙아시아 연계 국제 운송망(TITR) 추진



자료: <http://inozpress.kg> (2022.7.27)



자료: <https://www.swp-berlin.org>



## IV. 시사점

###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교역 확대 추진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의 대 중앙아시아 수출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22년에 전년 대비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수출액은 116%,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액은 16%, 대 키르기스 수출액은 232% 각각 증가하였음. 향후 중앙아시아 경제의 성장에 따라 교역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 지역의 경제협력체인 EAEU(유라시아경제연합)가 역내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 단일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EAEU와의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음.

###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공급망 협력

-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 간 협력 추진을 통한 에너지 및 주요 광물의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음.
- 한국은 2014년부터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본격적으로 수입해 왔으며, 수입액이 2014년 3.72억 달러에서 2022년 45.9억 달러로 수입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22년 금액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7번째 원유 수입상대국(2014년 17위)이며, 수입비중은 4.3%(2014년 0.4%)를 기록하였음. 이에 향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한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리튬, 몰리브덴, 티타늄 등을 수입하고 있으나, 이 국가들로부터의 광물 수입규모는 아직까지 많지 않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연, 구리, 티타늄, 크롬, 망간, 리튬<sup>24)</sup>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광물의 매장량이 많고 생산이 활발하므로, 한국은 광물 분야에서 발전잠재력을 갖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기존의 한국의 광물 공급망을 보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물류망 협력

-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간의 안정적인 물류망 구축을 추진할 수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에 따라 교역이 확대되고 교역망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내륙지역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주변국들과의 다양한 물류망 구축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한국 물류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여 유라시아 대륙 물류망 연계 사

24) 이 광물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33종의 핵심광물에 포함됨.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2023. 2.



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동북아시아 지역과 중앙아시아의 안정적인 물류망 구축이 전망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향후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물류망 구축 사업에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음.



### < 참고 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2023.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OECD. Weathering economic storms in Central Asia. November 2022.

<https://www.cbr.ru> (러시아 중앙은행)

<https://www.cbr.ru>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https://www.nationalbank.kz>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https://www.nbkr.kg> (키르기즈 중앙은행)

<https://stat.gov.kz> (카자흐스탄 통계청)

[www.xe.com](http://www.xe.com)

[www.reuters.com](http://www.reuters.com)

<https://policy.trade.ec.europa.eu>

<https://economy.kz>

<https://uz.sputniknews.ru>

<https://www.worldbank.org> (세계은행)

<https://www.gazeta.uz>

<https://multimedia.scmp.com>

<https://www.gisreportsonline.com>

<https://www.spglobal.com>

<https://ec.europa.eu> (European Commission)

<https://www.ft.com>

<https://bne.eu>

<https://oilcapital.ru>

<https://kun.uz>

<http://inozpress.kg>

<https://www.swp-berlin.org>

<https://jamestown.org>

<https://eurasianet.org>